

### 5·31 지방선거 D-55

# “영심을 잡아라”

(YOUNG心)

대학생위 신설·20대 부대변인·꼭짓점 댄스...  
각당 19세 유권자 겨냥 젊은 표심 잡기 부심

“영심(YOUNG心)을 잡아라.” 5·31 지방선거를 55일 앞두고 정치권이 젊은층의 ‘표심잡기’에 부심하고 있다. 각 당이 대학생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월드컵특위 구성, 20대 부대변인 공모, ‘꼭짓점댄스’ 행사 등 젊은층의 눈높이에 맞춘 갖가지 선거전략을 앞다퉀 마련하고 있는 것.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선거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져 1987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광주·전남의 경우 253만16천명(2005년 말 현재)의 유권자 가운데 올해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19세는 광주 1만9천178명, 전남 2만5천133명 등 모두 4만4천191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에 해당하는다. 전국적으로는 62만여명에 이르러 한 표가 아쉬운 각 정당으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투표층이다.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은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최근 중앙당에 지난 1987

년 6월 항쟁 무렵에 태어난 19세 유권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위원회 산하에 대학생위원회를 두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등 200여명의 대학 1~2학년생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열린우리당 중앙당은 20대 부대변인을 뽑기로 하고 6일까지 공모를 받고 있다. 젊은 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당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다. 독일 월드컵 D-60일인 오는 10일에는 국회 분수대 앞에서 정동영 의장을 비롯한 우리당 의원들과 황영조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점 유행하는 ‘꼭짓점 댄스’ 행사를 연다.

지역 정치권에서 ‘꼭짓점 댄스’를 가장 먼저 선보인 곳은 민주당 광주시당. 지난 달 청년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였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와 함께 ‘월드컵의 해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응원 열기를 확

산시켜 나가고, 경선이 끝난 뒤 광주시당 내에 인터넷음악방송국(MTV)을 설치해 젊은 세대와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중·장년층의 지지는 높지만 젊은 층에는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당 조직의 연령층도 장기적으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만 19~25세 남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하이틴 부대변인’을 뽑아 선거 기간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지방선거 현장을 누빌 VJ(비디오자키)들을 직접 뽑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청년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 학생위원회 등 3개 조직을 가동해 ‘내 생애 첫 투표는 민주당에게’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19세 유권자들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 주요 대학 등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와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홍보투어와 19세 투표 두려움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이 같은 선거 전략이 지방선거를 ‘정책대결의 장’이 아닌 이미지에만 치우친 ‘이벤트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경선’ 가닥 잡은 우리당 광주시장 후보 공천방식

# 이번엔 ‘당원 투표권 배제’ 갈등

후보자·의원들간 이견

열린우리당의 광주시장 후보 공천 방식이 경선으로 갈피를 잡은 가운데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후보자 뿐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간에도 이견이 노출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5일 “광주 국회의원 7명은 지난 2일 양평 워크숍에서 공천방법을 ‘TV토론 후 100% 시민여론조사경선’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 중재안을 김재균(전 광주 북구청장)·조영택(전 국무조정실장) 양 후보 측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시민여론조사 경선에 대한 후보 반응 = 조 전 실장은 이를 수용했다. ‘경선 불가’라는 기존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청장 측은 “중재안은 기간 당원(30%)·일반당원(20%)·일반국민(50%)으로 구성토록 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에 관한 당헌·당규를 위배하고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청장 측은 또 “후보자 간 합의가

능한 100% 여론조사는 당원들의 투표권을 완전히 배제한다”며 반대했다.

◇두 후보간 협상은 가능한가=입장 차이는 있지만 협상 여지는 있다. 김 전 청장 측은 “두 후보가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협상하자”고 제의했기 때문이다.

물론 조 전 실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선문제는 중앙당이 정할 것이지만 후보자가 협의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 당장 만남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냥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두 후보자간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물론 만만다고 협상이 바로 타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 전 실장 측은 “후보 선정은 미인대회나 빌보드차트 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경선에 부정적 입장이나 김 전 청장 측은 당원들의 참여가 보장된 경선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광주 국회의원들도 제각각=경선 논란은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의 반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5일 열린우리당 영동연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장 후보 선출은 당헌·당규에 충실해야 하고 당원들의 참여가 배제된 여론조사 경선 논의는 고려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앙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조속히 확정해야 하며 후보 선정은 당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안인 ‘100% 시민 여론조사 경선’은 후보자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동철·양형일·김태홍 의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워크숍에서 합의한 내용을 뒤엎었다는 것이다. 특히 후원당원이 한 명도 없는 조 전 실장을 영입해 놓고 당원 참여 경선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 게임’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일 오전 광주에서 열린 '5·31 지방선거 광주 필승결의대회'에 참가한 정동영 의장 등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이 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정 의장 좌우 양쪽은 광주시장 후보 경합중인 김재균 전 광주 북구청장과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 강금실 극장무대에서 정치인생 시작

서울시장 출마 선언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정동극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정동극장에서 열린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은 잘 꾸며진 한 편의 연극을 연상시켰다. 강 전 장관은 출마선언에 앞서 광화문 근처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한 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2백여미터를 걸어서 정동극장으로 이동했다.

덕수궁 돌담길로 알려진 이 길은 경이적이고 재학시절 ‘여고생 강금실’의 등하고 길이었다. 가는 도중 행인, 노점상들과 인사하며 약속도 나눴다.

강 전 장관의 상징색이 ‘보라색’과 ‘하얀색’으로 결정됐기 때문인지 이날 강 전 장관이 선택한 의상은 투피츠 양장을 비롯해 스카프와 귀고리, 목걸이, 구두 등 모두 연보라색 계통이었고, 눈화장도 보라색이었다. 보라색 재킷 안에 입은 니트만 하얀색이었다.

강 전 장관은 출마선언문 낭독에 앞서 마

치 독백과도 같이 “항상 오는 봄이지만 봄이 될 때마다 설레어 진다”며 “오늘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 한다. 그 시작의 설렘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10여분간 잔잔하게 출마선언문을 낭독한 강 전 장관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예의 차분하면서 논리적인 답변으로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았다.

강 전 장관은 자신의 인기가 거품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여론조사 인기가 거품이라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340석인 정동극장 좌석은 취재진과 우리당 당직자, 지지자들로 만원을 이뤘다. 그가 연단에 올라서자 수백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방 터졌다. 강 전 장관의 관를 들고 ‘강 장관님 사랑합니다’를 외쳤다.

그러나 이날 행사를 지켜본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살벌한 정치관에서 예쁜 것만 가지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우리당 광주·전남 공략 시동

정동영 의장 등 지도부 총출동 DJ센터서 지방선거 필승대회

열린우리당은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당 지도부와 7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5·31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를 갖고 광주·전남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정동영 당의장, 김현규·김두관·조배숙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 출동,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오후 선거 필승결의대회까지 가졌다. 이 결의대회에서는 또 최근 광주시장 후보로 영입한 조영택 전 국

무조정실장 입당 환영식까지 열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유도했다.

이날 대회에서 정 의장은 “광주는 7명의 국회의원을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며 “광주시장으로 열린우리당 후보를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장은 또 “한나라당의 지방정권에 대한 독점을 이번 선거로 끝낼 것이다”며 “광주시민이 결단해 주어야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단한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은 “열린우리당 광주시장후보로서 타당 후보들과 차별적인 경력이 있으며 아마추어적 시장이 아닌 프로적인 시장으로서 광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면서 가진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랜드 디자이너가 돼 광주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류의 심원 - 베통도  
**유한양행**  
www.yuhan.co.kr

• 유한양행은 대한민국 유일의 종합 제약사입니다.  
• 유한양행은 대한민국 유일의 종합 제약사입니다.  
• 유한양행은 대한민국 유일의 종합 제약사입니다.

## 2배로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위해, 공부하는 아이를 위해, 하루 2알 베콤씨를 바칩니다!

누구보다 아침 일찍 출근해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위해!

아침, 저녁 하루 2알

누구보다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

우리나라 우리가족의 힘 - 베콤씨

■ 베콤씨에 함유된 비타민B군과 비타민C는 수송체로부터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 유한양행 소치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104 (02-555-1000)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0-100 (051-555-1000) / 대구광역시 서구 중앙대로 100-100 (053-555-100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00-100 (042-555-1000)